

빛 값는 고신용자, 빛 내는 중저신용자… 금융 양극화 심화

최근 시중은행 가계대출 감소세
한달 새 3.3조 줄어 677조원 대
정기 예·적금 잔액은 1.3조 늘어

금리 높은 2금융권 대출은 증가
카드론·현금서비스 22.5조 늘어
저신용자 상환능력 저하 우려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의 금융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수요는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2금융권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 469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3조 2971억원(0.48%)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 감소세는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 연속이다. 반면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한 달 새 1조3000억원 늘었다.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고신용차주들이 대출을 갚고 예금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간의 금융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뉴시스

◆ 신용등급 따라 수요 양극화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 차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카드)의 올 1분기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누적액은 22조5405억원으로 각각 3조6000억원, 4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현금서비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아 고신용차주의 이용률 또한 높다는 분석이다. 신용점수 전반에 걸쳐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중저신용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서민들의 급전창구’라고 불

“금융사 해외 투자유치·진출 확대 지원”

금감원·금융권 해외 IR 공동 주최
이복현, 동남아3국과 협력강화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첫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나섰다. 이번 행보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유치와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출국한 이원장은 오는 12일까지 총 4박5일 일정으로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3개국을 방문한다.

이원장은 금감원과 금융권이 싱가포르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외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해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동남아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 등 최고위급과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9일 열린 IR행사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흥원



‘인베스트 K-파이낸스 싱가포르 IR 2023’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학 삼성화재해상보험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재보험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원장은 “한국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한국의 금융산업은 견실한 안정성 및 건전성·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대내외 위협요인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비거주자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감독 행정의 투명성·일관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원장은 세타쑹 수티윌트나르 쑹 태국 중앙은행(BOT) 총재, 호현신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부청장, 마헨트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OJK) 등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들과 연세 회동도 갖는다.

이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활동 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양국 금융당국 간 협력 강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4대 연금 하나계좌로 받으면 우대금리”

하나은행, 6월 30일까지 이벤트
파리바게뜨 상품권 전원 증정

하나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4대 연금을 하나은행 계좌로 받으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받는 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하나은행에서 새롭게 4대연금을 받는 고객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으로 연금계좌를 변경한 고객 등 하나은행을 통해 4대연금을

처음 받는 고객에 ‘2만 원 상당의 파리바게뜨 상품권’을 전원 증정한다.

영업점 방문 시 연금신규손님 전용 1년제 정기예금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에 하나은행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고객도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 응모 시 ‘연금 하나 월복리 적금’ 금리우대 쿠폰 0.5%를 전원 추가 제공한다.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은 하나은행에서 연금을 받는 고객이 분기별 3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한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특화 적립식 상품이다.

/구남영 기자

리는 만큼 중저신용자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 시중은행 대비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고신용 차주의 상환능력은 올라가고 중저신용 차주의 상환능력은 떨어지는 ‘금융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30대의 빛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신용등급을 책정하기 어려운 ‘신파일러(Thin Filer·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가 다수 포진했으며 30대의 경우 결혼 준비, ‘영끌’ 등 대출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가계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금융권(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의 가계대출잔액은 2019년 4분기 대비 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30대의 대출잔액은 26% 늘었으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2% 급증했다. 2030세대의 빛이 늘어난 셈이다.

◆ “저신용자 부채상환능력 키워야”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자의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대출 기준 강화는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자와 저소득자가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숙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20~30대를 중심으로 금융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년 맞춤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청년 맞춤 신용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통상 신용점수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체내역 등을 통해 판단하는 데 20대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요금 상환내역”과 같이 20대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청년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대출금 할부 기한을 늘려 상환 액수를 줄여 줄 필요성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신한, 금융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롯데 ‘셀리고객’ 제휴병원 의료비 할인

카드 News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서비스 강화
첫 취급통화 18종 환율 100% 우대

신한카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진행한다.

◆ 금융 취약계층 위한 교육

신한카드는 올해 ESG 경영의 일환으로 고령층 금융교육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금융취약계층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층을 포함한 느린학습자, 청소년 등 10만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따라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교육을 개발했다. 올해 5000명에게 맞춤형 디지털 금융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위해 지난 2월 서울50플러스센터 5개 지역(노원, 성동, 동작, 영등포, 서대문) 및 사단법인 피치마켓(PEACH MARKET)과 ‘디지털금융 취약계층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금융강사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가 ‘셀리(Selly)’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비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 ‘이공일컴퍼니’와 협업

롯데카드는 의료복지플랫폼 ‘서울메디컬’ 운영사인 이공일컴퍼니와 제휴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다. 라식, 라섹, 임플란트, 교정, 모발이식, 피부관리, 자궁경부암 주사 등이다.

내달 30일까지 전국 약 130여개 서울메디컬 제휴병원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롯데카드X서울메디컬 의료비 할인 이벤트.

/롯데카드

수 있다. 셀리 이벤트 페이지 내 비급여 의료 복지 서비스 게시물에서 원하는 진료과와 병원을 선택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예약을 할 때는 소속명에 ‘셀리’를 입력해야 한다.

하나카드가 자사 주력 상품인 ‘트래블로그’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 베트남, 태국, 스위스 등 환율우대 통화 추가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를 통해 국내 최초 취급 통화 18종에 환율 100% 우대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트래블로그는 ▲환율 우대 100% ▲해외이용수수료 무료 ▲해외 현금 인출 수수료 무료 등 해외여행과 관련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를 대비에 신규 서비스 개발과 편의성 증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최초로 베트남(VND), 태국(THB), 스위스(CHF) 등 18종 통화에 환율 우대 100%를 적용한다. 기존 혜택에 더불어 손님 중심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서비스 가입자는 90만명을 넘어섰으며, 환전액도 2300억원을 돌파했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원화로 환급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다. 지난 6일을 시작으로 환급수수료를 5%에서 1%로 인하했다.

/김정산 기자

롯데손보

1분기 영업익 1050억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롯데손해보험의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은 1분기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105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영업이익 470억원과 투자영업이익 580억원을 달성했다. 창사 이래 개별 분기 최대 이익이다.

장기보장성보험 분기 신규월납액 역시 사상 최대인 10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52억원에 비해 107.7% 상승했다.

/김정산 기자